

전일동향

전일대비 28.50원 하락한 1418.00원에 마감

30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446.70(15:30 기준) 3.0원 하락한 1,443.70(06:00 기준)에 개장했다. 환율은 전일 미 FOMC 결과를 소화하며 수출기업 달러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되자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일대비 28.50원 하락한 1418.00원에 증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29.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2.40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43.70	1447.70	1418.00	1418.00	1441.10
	엔화	890.26	902.40	876.87	902.40	-
	유로화	1659.79	1668.33	1630.35	1634.24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	-1.8	-5.5	-12.79
	결제환율(수입)	0	-0.84	-3.46	-9.3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약달러에...1,42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7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37.40, 15:30 기준) 대비 12.90원 하락한 1,423.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약달러와 수급상 매도 우위에 하방 압력 확대될 전망이다. 간밤 발표된 미국 성장률과 PCE 물가에서 둔화세가 확인되며 달러 약세가 이어졌다. 여기에 미-일 외환당국이 엔저 방어 의지를 내비치고 간밤 일본 외환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에 엔화 가치 급등 및 달러가 약세폭을 확대하면서, 이에 연동하여 금일 원화는 강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급 측면에서도 수출업체 월말 네고물량 및 ADR 관련 자금까지 강하게 유입되고 있어, 금일 달러/원 환율은 추가 하락을 시도할 전망이다. 한편, 간밤 뉴욕 기술주 중심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국내 증시에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외국인 복귀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환율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지정학적 불안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14.50 ~ 1429.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3280.0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90원 ↓
	■ 美 다우지수 : 52208.06, +613.92p(+1.1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82.0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301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